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3년 12월~94년 3월 분으로 다음 17종의 도서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 소년원, 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재미있는 새이야기

최영무 지음

공기며 물이 더러워지고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어진 책.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 하는 두루미들의 사랑, 딱따구리의 저축심, 물수리의 검소한 생활태도 등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한다.

대교출판/A5신/218면/4500원

이야기 小學

최근덕 지음

송나라 때의 학자 위정치가 편찬하고 그의 스승격인 주희가 교열한 책 「小學」을 이야기식으로 꾸몄다.

철학과현실사/A5신/334면/5000원

모두가 주인공이다

이상백 지음

여성 특유의 잔잔한 문체로 펼쳐지는 '교사가 본 아이들 세상' 이야기. 전반부에는 '겨울교실' 연작시를, 중반부에는 교사의 생활을, 후반부에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진은 남봉우씨 작.

문학세계사/A5신/182면/4800원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은 외 엮음

기실 "책을 읽어라"라는 말만 무성할 뿐 그 방법에 대해 제시한 책은 최근 들어 출판되고 있는 형편. 책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경험담이 슬회되어 있다.

민음사/A5신/454면/8000원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지음

「몽실언니」 「하느님의 눈물」 「사과나무밭 달님」 「점득이네」 등의 장편동화로 어린이들과 친숙한 저자가 쓴 작품.

산하/A5신/202면/4000원

전기자기학

방승범·이창효 지음

전기, 자기에 관련된 역사와 전기자기학의 내용을 법칙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설한 책.

전파과학사/A5신/254면/5000원

이양하 수필선

이양하 지음

저자의 고독했던 생활, 소박성, 감사에 넘쳤던 생활, 사랑하던 자연·예술·친구들·청춘·삶 등을 읽어낼 수 있는 수필집.

을유문화사/B6/216면/2500원

나는 생각하는 내가 참 좋다

신술래 지음

논리적 사고에 앞서 그를 터득하기 위한 전 초적 훈련이 필만하다고 저자가 말하는 책.

혼겨레/A5/158면/5000원

조용한 사랑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엮음/김성재 옮김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읽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현대문학 모음집.

일지사/A5신/132면/3000원

선생님의 밥그릇

이창준 외

사람들은 간혹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 아름다움과 눈물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모양인데, 이 책은 그 공통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두 18편의 글이 실려 있다.

호암출판사/B6신/168면/4500원

잃어버린 서울 그리운 내 고향

이득렬 지음

옛장수의 가위소리, 밥풀튀기는 장수, 겨울 밤의 딱따구리소리, 몽당연필,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을 현재의 젊은이들은 모른다. 이야기로나 전해 들었을 뿐이다. 일종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 책은 인공위성이 날라다니는 시대에도 비참했던 옛날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고려원/A5신/322면/5500원

동편제(上·下)

윤영근 지음

소리 하나에 삶의 전부를 걸고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주인공 정구룡을 통해 한 사람의 명창이 탄생되기까지의 숭한 고난과 민족의 수난기였던 일제시대를 소리로 버터낸 소리꾼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삼신각/A5신/각 304면 내외/각 5500원

발로 쓴 세계 청소년의 생활과 미래

이재욱 외 지음

문화적 혜택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밀착취재했다.

실록출판사/A5신/284면/6000원

우리시대 우리작가(1)

김승옥 외

분단문제, 군사독재의 비유적 고발, 개인과 조직사회의 소외감, 인간의 원초적 선에 따른 따뜻한 옹호 등 나름대로 강한 개성으로 70년대의 문제작으로 호평을 받았던 소설들을 묶었다.

동승동/A5신/418면/6500원

후회없는 젊은날을 위하여

황인수 지음

'내가 만일 일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아가겠노라'는 인생 패자부활전에 임하는 자세를 담고 있다.

밀알/A5신/372면/6500원

고교생이 알아야 할 고전

구인환 엮음

수학능력시험 및 본고사나 일반인의 교양을 위하여 신화에서부터 신소설까지 간추려 놓았다.

신원문화사/A5신/428면/5000원

빈손으로 돌아와도 좋다

김열규 지음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민속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서강대 교수가 됐던 노학자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쓴 귀향기.

제삼기획/A5신/258면/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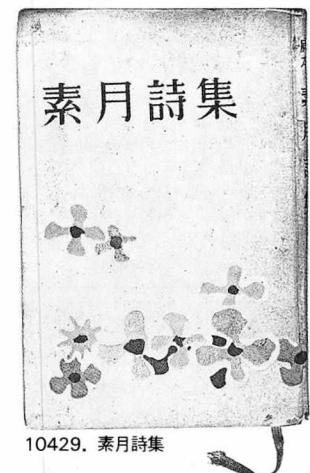


“ 호산방은 30년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이케이드 7호 전화 722-8029, 723-7431 팩스 722-6642 <광화문 우체국역 한일은행 건물>

판매 도서 목록

- 02927 朝鮮의 故蹟: 崔南善 東明社 1948. 2. / 50,000원
- 04101 奎章全韻: 庚申. 木版本 / 50,000원
- 04547 壬辰倭亂(前): 權泰益 朝鮮文化硏究會 1948. 2. / 50,000원
- 04613 漢陰先生文稿: 李德馨 木版本 5冊 / 600,000원
- 06270 新朝鮮風土記: 師尾源藏 萬理閣書房(日) 1930. 9. (6版) / 100,000원
- 06582 滿洲地誌硏究: 田中秀作 古今書院(日) 1930. 7. / 150,000원
- 07326 無花果(제3집): 無花果同人會 1960. 9. / 30,000원
- 08979 趣味의 慶州: 大坂六村 慶州古蹟保存會 1944. 7. 표지낙장 / 50,000원
- 09334 仁顯王后傳(博文文庫 19): 李秉岐 博文出版社 1947(?) 판권지낙장 / 50,000원
- 09336 朝鮮의 傳説: 豊野實 大東印書館 1944. 10. / 100,000원
- 09421 靑麥: 靑麥(金容淑 譯) 正音社 1955. 3. / 50,000원
- 09980 灰色의 거리를 걸어간다: 金京鉉 詩作社 1958. 1. / 20,000원
- 09983 님의 노래: 金廷湜 景文社 1959. 10. / 20,000원
- 10414 抗日學生史: 梁東柱 靑坡出版社 1956. 11. (3版) / 50,000원
- 10421 童土: 朴聽虛 朝鮮日報社出版局 1955. 12. (再版) 저자서명본 / 50,000원
- 10427 人生春秋: 洪永義 東西文化社 1954. 5. / 50,000원
- 10429 素月詩集: 金廷湜 省文社 1958. 12. / 20,000원
- 10450 新天地(第3卷3號): 서울신문社 1948. 3. / 50,000원



10429. 素月詩集